

## 芝川 黃廷彥 문학에 나타나는 剛健함에 대하여\*

이 재 숙\*\*

### < 目 次 >

- |                   |                 |
|-------------------|-----------------|
| I. 서론             | III. 自遣과 剛健한 기상 |
| II. 삶의 굴곡과 失意의 극복 | IV. 결론          |

### < 국문 초록 >

지천의 한시는 전하는 작품이 적어 당대 지천이 이루었던 문단의 명성과 관각문인으로서의 업적 및 그 위상을 논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게다가 지천은 붕당의 정쟁 속에 많은 모함을 받아 생을 마칠 때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다.

본고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평가에서 벗어나 황정옥의 사상을 통해 작품 속의 강건함을 주목하고 경물 묘사의 특징, 시상의 전개, 즐겨 쓰는 시어 및 표현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천의 한시에는 儒學의 수양 방법론이 면면에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주역』 剛健의 개념과 관련지어 살펴본 것이다.

지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經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義理思想과 樂天知命이었다. 때문에 정치적인 고립, 붕당간의 정쟁과 모함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탱할 수 있었다. 한시에도 평소 지천이 추구한 정신지향이 그대로 표출되었는데, 우뚝하고 웅장한 자연 경물의 무궁함 속에서 장대하고 강인함, 굳건함의 이미지를 자주 형상화하였다. 無窮, 無盡, 無礙, 剛風, 萬里, 萬古, 萬魚, 千

\* 본 논문은 (사)방촌황희사상연구회에서 주최한 “방촌 황희와 지천 황정옥의 학문과 사상 재조명(2019.11.2)”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보완하고 수정한 것이다.

\*\*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jaisugi@hanmail.net

層 등의 무궁함과 장대함을 상징하는 시어를 사용하고, 八九胸中の 광활한 天地의 기상과 포부를 나타내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지천 시에 나타나는 강건함은 이렇듯 경물을 바라보는 지천의 기상과 관점, 내면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광활한 자연의 운행과 장관을 바라보며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극복하고 그 속에서 자연을 본받으려 한 자세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지천의 기상을 『주역』의 「困卦」와 「乾卦」등에 함축된 대인·군자의 처신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이다.

【주제어】 黃廷彥, 芝川, 剛健, 周易, 困卦, 黃赫, 대인·군자

## I. 서론

지천 황정욱(1532~1607)은 16세기 중기 海東江西詩派의 범주 안에서 당대의 시풍을 이끈 湖蘇芝三家 중의 한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穆陵盛世는 다양한 시인들이 많은 작품을 창작하고 전성기를 누린 때로서, 시화비평서에 그들의 시를 평가하며 우열을 논한 내용들 역시 풍부하다.

허균은 시에 대해 스스로 대단히 자부했던 황정욱에 대해 추억하면서 그의 시를 “드높고 굳세고 힘차며 깊고 드넓다[矜持勁悍, 森邃沈寥]”라고 하며 천 년이래 절창으로 높이 평가하였다.<sup>1)</sup> 또한 허균은 지천의 시가 놀재 박상에서 나와 소재 노수신·호음 정사룡의 시 수준을 드나들어 자못 그 유과는 같으나 더욱 뛰어나다고 하였다.<sup>2)</sup> 谿谷 張維는 유독 호소지 삼가의 시 중에서 지천의 시가 많이 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천의 시를 “橫逸奇偉”<sup>3)</sup>라고 평하고 독자적으로 이루어낸 지천 시의 높은 경지를 칭송하였다. 한편, 김창협은 호소지라고 하여 시인들을 병칭하지만

1) 허균, 『성소부부고』 권5, 「黃芝川詩卷序」, 余友趙持世稟其近律百餘篇, 余始寓目, 則其矜持勁悍, 森邃沈寥, 寔千年以來絕響.

2) 위의 글, 嚴所變化, 蓋出於訥齋, 而出入乎盧·鄭之間, 殆同其派而尤傑然者.

3) 장유, 「芝川集序」, 『谿谷集』 권6, “讀之, 橫逸奇偉, 名章雋句, 磊磊驚人……후략”

세 사람의 시가 다른 점을 주장하고 특히 지천은 “矯健奇崛”하여 황정견·진사도에서 나왔으나 宏放함이 노수신에 못 미치고 노수신의 시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했다.<sup>4)</sup>

황정옥에 대한 연구는 해동강서시파로 규정되어 최초로 조명이 되었고,<sup>5)</sup> 이러한 선대 문인들의 品評을 중심으로 생애와 행적에 대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sup>6)</sup> 이후에는 황정옥의 입란전후의 삶에 주목하여 유배와 정치적 실의를 중점적으로 해명하고 유배 이전과 이후의 작품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다.<sup>7)</sup>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강서파 또는 두보의 시풍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진 측면이 있고, 아울러 생애 및 행적에 대해 대체로 규명되었다. 한편 그의 정신세계를 주목하여 인격 양상을 조명해 보려한 연구와, 시의 형식적인 면을 분석한 연구<sup>8)</sup>는 지천 황정옥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 데 새롭게 진일보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6세기 한시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호소지 삼가의 문예미 측면을 다룬 연구<sup>9)</sup>는 지천 황정옥 한시의 矯健橫逸의 미감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황정옥 한시의 특징과 독자적 면모를 밝히려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황정옥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 지인들이 지은 挽詩와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글을 통해 그의 삶을 대표하는 정신세계의 지향점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황정옥 시 전

4) 김창협, 『農巖集』권 34, 「雜識 外篇」 한국문집총간 162권, p.373a, 芝川, 矯健奇崛, 出自黃·陳而宏放, 不及蘇, 蘇齋其最優乎.

5) 이종목, 「해동강서시파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6) 구사회, 「황정옥론」, 『조선시대 한시작가론』, 이회, 1996, 황정옥의 생애 및 시의 면모를 개략적으로 밝힌 초기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차용주, 「黃廷彧 研究」, 『한국한문학작가연구』 2, 아세아문화사, 1999.

7) 이은주, 「황정옥 시의 대비적 양상에 대한 일고찰」, 『한국한시작가연구』 6, 2001. 김중서, 「芝川 黃廷彧의 삶과 시」, 『韓國漢詩研究』 20, 한국한시학회, 2012.

8) 신향림, 「黃廷彧 詩에 나타난 大人의 人格理想」,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학회, 2001.

이민호, 「芝川 黃廷彧 詩의 拗體에 대하여」, 『어문연구』 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9) 이종목, 「湖蘇芝 律詩의 文藝美」, 『한국한시연구』 23, 한국한시학회, 2015. 지천 황정옥 한시의 율시를 대상으로 허균의 『國朝詩刪』에 선발된 작품을 살핀 것이다.

체<sup>10)</sup>에 나타나는 “강건함”<sup>11)</sup>의 문예미에 대해 주목하고 한시 작품에 드러나는 경물 묘사의 특징, 시상의 전개, 즐겨 쓰는 시어 및 표현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백광훈이 “황모공의 시는 經術에서 나와 義理를 자득하여 이루어진 文이다. 점필재와 나란하고 정사룡과 소세양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sup>12)</sup>라고 평한 것에 근거를 두었다. 다른 아닌 도학과 경술을 대표하는 점필재와 나란하다고 극찬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황정옥 한시 전체의 문예적 특질은 그가 삶 속에서 추구한 정신지향과 정치적 부침 및 실의의 상황 속에서 보여준 강개함, 곧 지천의 인격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본고는 지천이 곤궁한 처지에서 儒學의 수양방법론을 한시 면면에 드러내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이를 『주역』에서 말한 剛健의 개념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한다. 이른바 “文如其人”·“文品即人品”이라고 하여 문학이 반드시 다 그러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문학 작품의 표현과 언어·意象·意境은 시인의 인격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이는 작품의 총체적인 문예미를 결정하는 요소이다.<sup>13)</sup> 지천의 한시작품은 지천이 추구한

10) 황정옥의 한시는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 5언 절구 6수, 칠언절구 75수, 오언율시 28수, 칠언 율시 84수, 칠언 배율 1수 등, 총 166제 194수이다. 본고는 한국문집총간 41권 『芝川集』을 참고하였다. (이하 『지천집』)

11) 본고에서 지칭하는 “강건함”은 한시비평 용어와는 별개의 단어로, 『주역』에서의 剛과 健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황정옥 삶과 관련하여 『주역』 「困卦」의 군자의 처신을 염두에 둔 것이다.

12) 황혁, 『獨石集』, 「先府君行狀」 한국문집총간 2차본 7권, p.220a, …及與詞人白光勳, 評鷗國朝以來詩家曰, 黃某公詩發於經術, 濟以自得義理之文也. 當與佔畢齋竝驅, 湖陰陽谷, 不是及也.

13) 王士禛은 『帶經堂詩話』에서 “시로써 뜻을 말한다. 옛 작가들 중 도연명, 사령운, 왕유, 두보, 위응물 같은 사람들은 그 시가 모두 남아있으니, 일찍이 시험 삼아 그 평생의 행적으로써 그 시를 살펴보았더니 작품마다 그 사람됨과 닮지 않은 것이 없었다. 천년 전으로 올라가 옛사람들과 사귀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詩以言志, 古之作者, 如陶靖節·謝康樂·王右丞·杜工部·韋蘇州之屬, 其詩具在, 嘗試以平生出處考之, 莫不各肖其爲人, 尙友千載者, 自能辨之.”라고 하였다. 文如其人 이론은 『書經』 「舜典」의 “詩言志”와 『시경』 「毛詩序」에 “詩者, 志之所之也.”라고 한 전통적인 이론을 계승하는 말이지만, 후대에 작가가 진실을 감추거나 실제와 다르게 꾸며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이 지적되

학술과 경술을 바탕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경물을 대상으로 자신의 극복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천 삶의 굴곡과 실의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한시 작품에 표출된 강건함의 의미를 재고해보고자 한다.

## II. 삶의 굴곡과 失意의 극복

지천 황정욱은 27세에 급제하여 출사한 이후 무난하게 여러 관직을 지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정치적 사건 및 임진왜란과 봉당의 여파로 굴곡진 삶을 살았으며 만년은 더욱 불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 큰 업적으로는 1584년(선조17) 宗系辨經奏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일이다. 太祖 李成桂의 부친이 李仁任으로 오인되어 명나라의 기록이 잘못되었는데 이때 『大明會典』을 수정하는 황제의 칙서를 받아 돌아왔고 1589년 尹根壽가 드디어 『대명회전』 전질과 칙서를 받아 돌아왔다. 선조는 전후에 봉사한 공로가 있는 이들을 녹훈하였는데, 지천은 長溪府院君으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지천이 한창 관직에 머무른 1575년(선조8) 이후부터 東西朋黨이 시작되었고 평소 강개한 성격인 지천은 대척적인 사람들에겐 미움을 많이 받았다.

지천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順和君<sup>14)</sup>을 모시고 함경도로 피신하였을 때의 일이다. 회령부에서 여덟 살이던 지천의

---

었다. 특히 劉鏞은 『文心雕龍』 「體性」에서 작가의 선천적 재능과 기질, 후천적 학습과 습관이 작품의 風格을 결정하며 이는 인위적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文如其人論은 심성수양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적 수양이 있어야 하고 眞時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홍광훈, 「文如其人論의 전개양상과 문학적 효용」, 『中國語文論叢』 36, 2008) 참조.

14) 이름은 이보(李玆), 선조의 여섯째 왕자이고, 부인은 승지 黃赫의 딸로 곧 황정욱이 처조부가 된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의 명을 받아 황정욱·황혁 등을 인솔하고 근왕병을 모병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파견되었다. 회령에서 왜군에게 체포되어 포로가 되고 부산까지 끌려가 1593년에서야 풀려났다.

증손자는 왜적에게 죽임을 당했고, 1592년 10월에 지천은 적장의 강요에 의해 임금에게 講和를 권유하는 장계를 쓰게 된다. 이 때 지천은 왜적을 속이며 가짜 장계를 작성하고 아울러 격식에 맞는 별도의 장계를 은밀히 작성해 왕자의 여러 편지들과 함께 전달하게 하였으나, 중간에서 빼버린 사람들 때문에 선조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왕자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포로가 된 위험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저들은 강화를 종용하고 적장을 殿下라 칭했다고 비난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당시의 이 일이 동인·서인 간 정치의 쟁점이 되면서, 이후 정권을 장악한 동인의 집요한 공격을 받아 길주에 유배되었다. 1597년 왕의 특명으로 석방되었으나, 복관되지 못한 채 1607년에 생을 마쳤다. 임진왜란 이후의 삶은 유배지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 할 수 있는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다. 지천의 아들인 황혁 역시 항복권유문을 썼다고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理山에 유배되었다가 신천으로 이배되었고 1612년 무고를 받고 투옥되어 옥사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91년(선조24) 7월에는 尹斗壽, 柳根, 黃赫 등과 함께 兩司의 탄핵으로 파직되는데, 이는 당쟁 과정에서 鄭澈의 잔당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화친과 관계된 장계 문제 역시 동서봉당의 회오리 속에서 지천은 당쟁의 희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천의 만년의 삶 역시 4년여 간 유배와 10여 년 田里에서 은거하며 곤궁하였다. 스스로 전원으로 물러난 소회를 “가슴 속 생각을 가만히 헤아려보니, 절반은 나라를 위해 절반은 전원생활 위해 살았네.[多少胸中間計較, 半爲家國半田園]”<sup>15)</sup>라고 회고하기도 하였다. 다음 유근이 쓴 만시를 살펴보면 이러한 지천의 생애를 간략히 짐작해볼 수 있다.

유근, 「挽芝川先生[지천 선생 만시]」<sup>16)</sup>

憶昔朝天日

추억하노니 예전에 명나라 가서

15) 『지천집』, 권1, 「閑居偶吟」, p.426c.

16) 柳根, 『西峴詩集』 권1, 한국문집총간 57, 민족문화추진회, p.428d.

眞成不世功	세상에 없는 공적 세우셨지
高名人所仰	높은 이름 사람들이 우러렀으나
末路命之窮	말년에는 운명이 곤궁하셨지
峻秩皆身外	높은 지위도 다 몸 밖의 일이고
稀年亦夢中	일흔의 나이 또한 한바탕 꿈이어라
幽明若相負	이승과 저승으로 이처럼 어긋났으니
何地竭吾衷	어디에서 나의 마음 다 토로할까

유근은 황정욱의 문인으로서 1591년 탄핵을 함께 받았고 누구보다 지친의 생애를 잘 이해하는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지천은 유근이 충주감영에서 조정으로 돌아갈 때나<sup>17)</sup> 일본 사신의 선위사로 갈 때에 시를 지어 주고<sup>18)</sup> 유근이 『황화집』을 보내오자 그의 시제를 칭찬하며<sup>19)</sup> 줄곧 문학에 대해 소통하는 제자였다. 수련은 지천이 『대명회전』의 오류를 잡는 데 공을 세운 것을 말한 것이고 함련은 말년 지천의 삶이 곤궁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스승이 높은 관직을 역임하고 70여세의 생을 살았으나 결국 15여 년 간 온갖 공격과 모함 속에 고난을 받았음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유근은 “患難을 만났을 땐 하늘도 어쩔 수 없었으니, 한번 길이 막히자 15·6년이 지났네, 시운인가 천명인가 이 지경에 이르다니, 평소 생각 말할 수 없으니 만사가 끝이도다.”라고 탄식하고 열다섯에 지천의 문하에 들어가 온갖 고난을 겪은 스승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였다.<sup>20)</sup>

지천은 1593년부터 1597년까지 유배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정쟁으로 다시 불러와 추국을 받고 또 위리안치 되었다. 중간에 선조가 지천을 오랜 공신이라고 하여 두둔했으나 여러 간관들은 극력 반대하여 방면은 폐

17) 『지천집』 권2, 「在忠州使臬, 贈柳校理根還朝」 p.440a.

18) 『지천집』 권2, 「送柳晦夫根宣慰日本使臣」 p.440b.

19) 『지천집』 권2, 「柳晦夫送示皇華集, 奉占却寄」 p.446c.

20) 유근, 「祭文」, 『芝川集』附錄 下, p.494c, 전략…禍患之來, 奈何乎天, 一落窮途, 十五六年, 時耶命耶, 乃至於此, 素心莫白, 萬事已矣. 自惟無狀, 險阻艱難, 慙負何言…(후략)

오래 걸렸다. 게다가 1597년 5월에 유배가 풀렸음에도 도성에 드나드는 것이 제한되었다. 1600년부터 지천 부자의 위서 사건에 대해 상소가 올라 오고 옹호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반대파에서는 끈질기게 몇 차례의 석방 명령을 취소시켰다. 선조 역시 정치적 정쟁의 여파에서 눈치를 보느라 답답해하며 마음대로 어찌지 못하였고, 결국 인조 때에 이르러서야 신원이 이뤄지고 관작을 회복하였다.<sup>21)</sup>

때문에 지천이 세상을 떠나자 당대 지인들과 여러 인사들은 지천의 원통함을 크게 탄식하고 애도하며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분통해 하였다. 다음은 지천과 함께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서나 문단에서 오랜 기간 동지로 지냈던 윤근수의 제문이다.

윤근수, 「祭長溪府院君文[장계부원군 제문]」<sup>22)</sup>

…전략…

公始得出	공이 비로소 빠져나와
來詣行在	행재소로 찾아뵈니
有以假狀	가짜 문서를 가지고
請公之罪	공의 죄를 청하였네
圜牆置對	감옥에서 심문을 받고
謫隣北戎	북쪽 변방으로 귀양갔다가
旣而歸田	얼마 후에 시골로 돌아와
作一禿翁	늙은 노인이 되었구나
班行迹阻	조정길 막히고
畎畝神傷	시골에서 상심하였네

…중략…

有銜不祛	재갈 물려 풀어지지 않고
有冤莫伸	원통함을 풀 수 없어

21) 홍서봉, 『鶴谷集』 卷8, 「長溪府院君芝川黃公神道碑銘 并序」 한국문집총간 79권, p.529a.

22) 윤근수, 『月汀集』 卷7, 한국문집총간 47권, p.295b.

一疾奄逝	한번 병들어 갑자기 세상 떠나니
萬事悲辛	모든 일 비통하고 괴롭네
以此蓋棺	이렇게 인생 마치니
痛矣其奈	통탄한들 어찌하리오
	...후략...

윤근수는 “승냥이 범 득실거리는 속에서 험난한 일 다 겪고, 죽을 고비 넘기고 돌아왔는데 모든 일이 결단났다.”라고 임진왜란 때의 지천이 당한 위서 사건을 표현하였다. 아울러 “오랜 허물 풀리지 않아 공연히 초나라 혼백”을 불렀다고 하면서 지천의 억울함을 초나라 충신 굴원에 빗대었다.<sup>23)</sup> 지천은 아들 황혁에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오직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월정뿐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둘의 정 의는 두터웠다. 또한 지천은 살아있을 때 묘비나 묘지의 일을 월정공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sup>24)</sup>

이처럼 지천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서인의 문사들이 그의 원통함을 애도하였다. 徐涓은 “비방 쌓여 끝내 하늘까지 닿았다.”<sup>25)</sup>라고 비판하고, 沈喜壽는 “적진에서 돌아온 건 목숨 아낀 것 아닌데, 돌아와 죄인되니 원통함 어찌하라”<sup>26)</sup>라고 하면서 지천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음을 한탄하였다. 양 대에 걸쳐 교유가 도타웠던 具晟 역시 지천의 죽음을 슬퍼하고 원한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천이 자신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종실의 왕자를 소중히 여긴 점에 대해서 높이 기렸다. 하지만, 이러한 지천의 의리는 알아주지 않고 “死地에서 탈출은 하였으나 위기는 어찌하여 갈수록 엷

23) [尹根壽, 李準], 『芝川集』附錄下, 「祭文」, p.494a, 전략…豺虎叢中, 備嘗險難, 萬死歸來, 一敗塗地, 身落江湖, 詠追蘭芷, 夢斷鸚班, 迹阻修門, 宿累未釋, 空招楚魂…후략…

24) 황혁, 『獨石集』, 「先府君行狀」 한국문집총간 2차본 7권, p.220a, 전략…先君常謂弗類孤等曰, 世其莫我知矣, 知我者, 只有月汀公在世, 異日墓道之事, 可煩諸月汀公. 후략…

25) 서성, 『藥峯遺稿』 권2, 「黃芝川 廷彧 挽」, 한국문집총간 63권, p.167a. 瀛海文章伯, 凌煙第一勳, 名高空斗望, 謗積竟天薰, 驚者驚秋晚, 終南已夕曛, 魂召應不去, 恒逐日邊雲.

26) 沈喜壽, 『芝川集』附錄下, p.495d, 전략…來自賊庭非愛死, 歸仍罪籍奈含冤, 恨無張恕留章力, 塚草難沾禮葬恩.

혀드나[死地雖能脫 危機奈轉嬰]"라고 하여 안타까워하였다. 이에 대해 선조가 확연히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남들의 말에 현혹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특히 증자의 어머니가 증자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증자가 살인을 했다고 믿지 않더니 세 사람이 연이어 같은 말을 하자 베틀의 북을 던지고 달아났다는 고사를 사용해, "억울한 죄 아쉽게도 조명되지 않았고, 북 던지게 한 참소 애통하게도 밝히기 어려웠네[覆盆嗟莫照 投杼痛難明]"<sup>27)</sup>라고 하여 선조가 남들의 말에 현혹되어 믿어버린 것에 대해 맹렬히 지적하였다.

지천의 삶에 있어서 임진왜란의 강화권유문 위서 사건은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당대 서인 당파에 매우 큰 시비 거리가 되었고 결국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므로 안타까움이 컸다. 진란과 유배를 겪은 만년의 삶은 지천 문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과연 그렇다면 지천 스스로는 자신의 정치적 굴곡과 失意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황정욱, 「次韻[차운]」<sup>28)</sup>

丹心平日指天期	평소의 충성심 하늘을 두고 기약했고
按劔當前不復疑	칼을 잡고 앞서는 것 다시 의심하지 않았지
國破家亡離亂際	난리에 도성 함락되고 집안은 망하고
名隳身辱聖明時	태평성대에 명예 실추되고 몸은 욕되었네
紫袍謾道顏卿着	안경이 붉은 도포 입었다고 부질없이 말하지만
漢節唯須屬國知	소무가 한나라의 절개 지킨 것 모름지기 알아야 하네
千載若無良史在	천년 후에 훌륭한 사관이 없다면
古人奇詭亦孤危	옛사람의 훌륭한 자취 또한 외롭고 위태로우리라

지천 자신은 평소 충성을 늘 기약하고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 언제나 앞

27) 具戕, 挽詩, 『지천집』 부록 하.

28) 『지천집』 권2, p.443c.

장설 것을 의심하지 않았음을 수련에서 말하였다. 이어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망할 때 본인 역시 명예가 실추되고 집안이 망했음을 담담히 말하였다. 5구의 안경은 唐나라 顏杲卿을 이른다. 安祿山의 반란 때 반군을 크게 무찔러 공을 세웠으나, 나중에 안녹산에게 붙잡혀서 그를 크게 꾸짖고 죽임을 당하였다. 속국은 漢 武帝 때 典屬國 벼슬을 지낸 蘇武를 이른다. 소무가 흉노에 사신으로 가자, 흉노의 임금 單于는 그를 억류하고서 갖은 방법으로 항복을 권하였으나, 끝내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자신이 목숨을 바쳐 큰 공을 세우지는 못했으나 다만 소무처럼 절개를 지켰음을 함축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안고경과 소무가 훗날 역사에서 훌륭한 사관을 통해 그 충절이 전해진 것처럼 이러한 자신의 결백이 소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천은 자신을 소무와 비교하면서 “소무가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난다면 반드시 死地에 몰릴 것이다.”라고 하고 소무의 절개 역시 세상 사람들이 말을 꾸며서 모함하여 결백을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당대의 행태를 비판하였다.<sup>29)</sup> 이처럼 지천은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이 의리를 분명하게 보지 못함을 한탄한 것이다.

지천은 당시 자신을 두고 정쟁하는 상황을 “곡직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떠든다.[曲直不分人自鬧]”라고 표현하였고, 이안눌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뜻을 표현하기도 하였다.<sup>30)</sup> 그렇지만 지천의 글을 통해 살펴보면 자신이 시비의 정쟁과 모함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답답해하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운명은 곧 하늘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순응하는 태도로 귀결된다.

29) 황혁, 「先府君行狀」, 앞의 책, …전략… 先君偶曰, 我國人心褊淺, 見得義理不分明, 若使蘇武生今世, 必置之死地. 弗類赫對曰, 寧有是理. 先君微哂曰, 癡兒誤矣. 借令今人議武之罪, 必曰爾在匈奴十九年所矣. 命爾牧羊則牧羊, 至取小單于弓弩. 而補治之資, 活以不死, 乃至滄雪齧鬻, 無乃餒乎. 又何以娶胡女生子爲也. 爾之所以秉使節而示不屈安在, 以此文致之, 武何能自白, 仍徐曰, 爾小子閱歷世變, 其知之矣. …후략

30) 「四月廿六, 乃余初度, 李正郎安訥惠壽詞 二首, 不勝感愧, 作此答之」, 『지천집』 권2, p.447b.

황정욱, 「題贈黃亞使敏中[아사 황민중에게 지어 주다.]」

내가 이번에 임금의 은혜를 입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관동에서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던 때의 일이 은근히 생각이 났다. 그 때 경치 좋은 곳이 또한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어 있었다. 대개 하늘이 내가 평생 쉴 곳도 없이 울울하여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처럼 지내기에, 한결같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문득 또한 이와 같이 어긋나게 하는 것 같았다. 참으로 웃을만한 일이다. 이에 절구 한편을 지어 기록하여 한바탕 웃음거리로 삼는다.<sup>31)</sup>

胸中了了遷居地	마음속에 분명히 옮겨 살 곳 있었는데
輸與江山富貴人	강산은 부귀한 사람에게 부여 되었구나
從此西歸無復戀	이제부터 한양으로 돌아갈 미련 다시 없으니
白鷗何處不相親	갈매기는 어디 있어 가까이 오지 않는가

지친은 고향으로 돌아갈 명을 받고 옛날 자신이 관동으로 가려했던 일을 회고하였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이미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된 승경을 떠올리고 자신의 뜻처럼 되지 않는 것은 분명 하늘이 한결같이 의도하는 바가 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天命順應의 자세는 다른 여러 시에도 나타나는데, 대체로 임란 이후의 자신의 삶의 굴곡과 실의에 대해서 관조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황정욱, 「夜坐偶占, 示內姪趙生[밤에 우연히 지어 처조카 조생에게 보이다.]」<sup>32)</sup>

粟里歸田日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
王官晚隱時	관리는 늦그막에 은거하네
古人知進退	고인은 진퇴할 줄을 알았는데

31) 「題贈黃亞使敏中并序」 『지천집』 권1, p.429b, …전략…余今蒙恩, 將放歸, 竊自注想於關東雲水縹緲之間, 而其所選勝之地, 又爲他人所占却, 蓋天以余平生無稅駕之所, 纍纍然如東西南北之人也. 一有所嚮輒又乖張如此, 眞可笑也. 仍率占一絕錄上, 以博一哂.

32) 『지천집』 권1, p.435c.

吾道竟支離	나의 도는 끝내 지루하구나
海內無家久	전국에 집 없어진지 오래고
南邊報捷屢	남쪽에선 승전 소식 더디네
百年餘幾許	남은 인생 이제 얼마나 남았나
若命且安之	명에 따라 편안히 마음먹으리라

위 시는 정확히 언제 지어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수련의 내용으로 보아 길주에 유배된 이후 시골에서 한가히 지내도록 한 것이 1597년의 일이니 이 때 이후 째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천은 석방을 명받았으나 언간에게 다시 저지당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시골에서 한가히 지내야 하는 처지였다. 황해도에서 경기도로 들어올 때 옮겨가면서 묵은 장소가 일정하지 않을 정도였고, 선조는 그때마다 식량과 약을 챙겨주기도 하였다. 이 때 당시의 자신의 심경을 표출한 시로서 지극히 참담한 심경이었음에도 미련에서는 천명을 편안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맺고 있다. 말구는 『장자』 「人間世」에,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운명에 편안히 한다[知其不可奈何, 而安之若命.]”라는 뜻을 인용한 말이다. 궁색으로 처참한 심경이지만 담담히 운명에 편히 한다는 뜻으로 강직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지천이 허균에게 준 다음 시 역시 같은 맥락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황정욱, 「送人赴遂安郡[수안군으로 가는 사람을 보내며]」 2수 중 첫째 수 33)

詩才突兀行間出	시재는 우뚝하니 동료들 가운데 뛰어난데
官況蹉跎分外奇	벼슬 복은 어그러져 분수 밖에 기구하네
總是人生各有命	이 모두 인생에는 각기 명이 있으니
悠悠餘外且安之	알 수 없는 그 외의 일에는 편안히 보게나

위 시는 허균이 수안군수로 좌천되어 가는 1604년(선조37) 8월에 지천이 전송하며 지어준 것이다. 지천은 허균이 詩才가 출중했어도 벼슬자리

33) 『지천집』 권1, p.430d.

는 불운한 것을 언급하며, 인생에는 제각기 운명이 있으니 알 수 없는 일에는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하였다. 허균은 이 시를 자신의 문집에 기록하면서 “특별히 감회가 깊다.[殊甚感慨]”라고 하였다. 또한 지천이 玉堂에 있을 적에 대궐안의 小桃를 소재로 읊은 화운시를 제시하고 “함축된 뜻이 심원하고 措辭가奇偉하다.”고 하면서 특히 칭송하였다.<sup>34)</sup> “공연히 해바라기 마음으로 태양을 향하네[空有葵心向太陽]<sup>35)</sup>의 시를 들어 허균은 당대 관료들을 비판하며 해바라기의 충심으로 비유한 지천 시의 措辭, 강개함, 重厚함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지천이 정치적 실의와 곤궁한 삶에서 추구한 지향점은 『주역』 「繫辭傳上」의 “하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다.[樂天知命, 故不憂.]”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시는 파직된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쓴 것이다.

황정옥, 「罷官向芝上, 午坐樓院[벼슬을 그만두고 지천으로 향하다가 낮에 누원에 앉자]」<sup>36)</sup>

午憩東樓卸馬鞍	낮에 동루에서 쉬며 말안장 푸는데
窮陰忽作暮天寒	음침한 기운 일어나고 저너하늘 차갑네
紅塵謾說歸田好	속세에서 귀향이 좋다 말들하지만
白首猶歌行路難	흰 머리로 오히려 행로난 노래하네
天或試人聊自遣	하늘은 나를 혹 시험하니 그저 스스로 마음 달래고
雨還留客覓求安	비 도리어 나그네 머물게 하니 잠시 편안함 구하네
明朝刮目鄉山碧	내일 아침 눈 비벼 고향 푸른 산 볼테니
且費今宵一夢闌	장차 오늘 밤 한바탕 꿈을 꺾어야하리

이 역시 1580년 해주목사에서 파직당하여 지천으로 가는 도중 지은 것이다. 지천은 하늘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34) 앞의 책, 성소부부고 제25권.

35) 황정옥, 「次李伯生詠玉堂小桃」, 『孤潭逸稿』 권4, 한국문집총간 53권, p.66b.

36) 『지천집』 권2, p.438d.

비속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처럼 편안함을 구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천이 樂天知命하며 편안할 수 있는 원천은 지천이 평생 추구한 經術의 의리와 학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진란 때 우리 부자는 왕자 순화군을 모시고 함경도로 들어갔다가 회령의 반군들에게 붙잡혀서 적에게 넘겨졌다. …중략… 조정에서는 우리 부자의 죄를 따져서 모두 멀리 귀양을 보냈다. 유배지로 온 뒤로 또 뜻하지 않은 비방을 불러와 三省에서 탄핵을 받기에 이르렀다. 천한 몸이 고문을 받다가 거의 죽게 되어 겨우 남은 목숨을 유지하였으니, 아! 참혹하다. 부자가 마침내 유배지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스스로 생각해보면 죄는 큰데 처벌은 가벼워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다. 다만 사람의 길흉화복은 모두 미리 정해진 것이어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또한 몽매간에도 징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근심과 시름에 쌓여 무료하게 지내던 중 우연히 옛날 방법을 모아 그 중에서 글을 뽑아 써서 때때로 살펴보아 修身하고 省察하는 자료로 삼는다. 모든 일에 敬慎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이는 옥처럼 성숙하게 하여서 곤경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을미년(1595) 시월 초하루 길성의 집에서 쓰다.<sup>37)</sup>

위의 글은 지천이 처음 길주에 유배되었을 때 곤경을 극복하기 위해 옛날 修身과 省察의 공부 방법을 메모하여 적어둔 책의 발문이다. 주어진 운명은 인간이 어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지만, 모든 일에 “敬과 慎”으로서 수신하고 성찰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숙하여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宋나라 張載의 「西銘」에, “빈천과 우척은 너를 옥처럼 다듬어 완성시키는 것이다.[貧賤憂戚, 庸玉汝於戒也.]”라고 하였다. 스스로 참혹한 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강건한 자신의 정신 지향과 수양방법을 옛 성현의 글에서 찾아 기록하고 극복하려는 뜻을 이 글을 통해 더 명확하게 알

37) 「夢書跋」, 『지천집』 권4, p.466d, 壬辰之亂, 吾父子奉王子順和君入北道, 爲會寧叛民所縛給于賊…중략…朝廷論吾父子之罪, 俱遠竄, 自來謫中, 又速意外之謗, 至被提參于三省, 賤督幾死于拷掠之下, 僅延殘喘, 吁慘矣. 父子遂還發安置, 自惟罪大罰輕, 天恩罔極, 但人之吉凶禍福, 皆所前定, 非人力可爲者, 而亦有夢寐徵驗之事, 憂愁無聊之中, 偶集古方, 拈出以書之, 時取檢看, 以資修省, 亡非隨事敬慎, 庸玉汝以出困厄者也. 乙未十月初吉, 書于吉城之寓舍.

수 있다. 백광훈이 “황모공의 시는 經術에서 나와 義理를 자득하여 이루어진 文이다. 점필재와 나란하고 정사룡과 소세양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sup>38)</sup>라고 한 것도 지천이 평생 추구한 유학의 수양론과 이로써 관통하는 정신지향을 두고 평가한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한시의 영향관계와 시풍의 평가에 국한되어 살펴온 지천 황정옥의 문학에 대해 관점을 달리하여 지천의 삶에서의 정치적 사건 및 실의의 배경, 그에 대한 지천의 지향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천이 줄곧 경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의리사상 및 樂天知命의 자세를 견지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상은 지천이 정치적인 고립, 붕당간의 정쟁과 모함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탱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 Ⅲ. 自遣과 剛健한 기상

앞 장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위서사건과 붕당의 정쟁으로 지천이 처한 역경과 시련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삶의 자세와 지천의 강인한 의지, 정신 지향에 대해 유추해 보았다. 본장에서는 지천의 내면세계의 지향점이 어떻게 시로 표출되었는지 작품의 소재나 묘사, 시어 등을 중심으로 살펴 대체적으로 강건함으로 집약되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한시 작품은 남은 수가 얼마 되지 않고 대체로 유배와 은거기에 지은 시와 지인들 간에 주고받은 증답시가 많다. 그의 한시에 많이 드러나는 이미지와 소재 및 시어들은 지천이 평소 추구한 정신지향과 일치되는 점이 주목된다.

가장 절친했던 벗 윤근수는 제문에서 지천 황정옥의 문장에 대해 두 구로 표현했다. 즉 “시는 두보를 본받아 우뚝하게 영역을 확립했고, 섬약한 풍조를

38) 앞의 책, 행장, …及與詞人白光勳, 評臨國朝以來詩家曰, 黃某公詩發於經術, 濟以自得義理之文也. 當與佔畢齋竝驅, 湖陰, 陽谷, 不是及也.

떨쳐버리고 전아하고 강건함을 위주로 하였다.[詩規老杜, 卓然自樹, 力振弱調, 雅健爲主.]<sup>39)</sup>라고 하였다. 백광훈이 지천의 문학을 “經術에서 나와 義理를 자득하여 이루어진 文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한시 작품에 있어서도 그 기상이 경술을 바탕으로 전아하고 강건했음을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강건함의 의미를 『주역』의 내용에 근거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우선 剛健이란 뜻을 나름대로 경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剛은 『주역』 「困卦 彖傳」에 “困은 剛이 가려진 것이니, 험해도 기뻐하며 곤궁해도 형통함을 잃지 않으니, 오직 군자만이 가능할 뿐이다.”<sup>40)</sup>라고 하였다. 剛은 곧 군자로서, 소인에게 가려진 곤궁함 속에서 군자의 처신 방법을 강조한 것이다. 程子は 이를 “陽剛한 군자가 陰柔한 小人에게 업매 당하였으니, 군자의 도가 곤하고 막히는 때이다.”<sup>41)</sup>라고 설명하였다. 군자는 곧 大人으로 지칭되며 이 “대인은 剛中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곤괘는 군자가 소인에게 가려워져 困乏하고 곤궁한 때의 처신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 많다. 군자는 곤궁할 때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굳건한 기상을 견지하는 것이다.

한편 健은 『周易』 「乾卦 象傳」에,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이것을 본받아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天行健, 君子以, 自彊不息.]”라고 한 것에서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程子は “지극히 굳셈은 천도를 볼 수 있다. 군자가 이를 보고서 스스로 힘써 쉬지 않음은 하늘의 운행이 굳셈을 본받는 것이다.”<sup>42)</sup>라고 설명하였다. 굳셈으로써 하늘의 도를 깨닫고, 또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스스로 끊임없이 견디며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주역의 뜻을 바탕으로 지천 한시의 강건함에 대한 시평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주역에서 표현된 강과 건의 내용 역시 무수히 많다. 중요한 것은 주역에서 대인군자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자신의 처지와 현실적 상황을 경계하고 극복하려했다는 점이다. 지천 한시에

39) 윤근수, 『月汀集』 卷7, 「祭長溪府院君文」 앞의 책.

40) 『주역』 「곤괘 단전」, 彖曰, 困, 剛揜也, 險以說 困而不失其所亨 其唯君子乎.

41) 『주역』 「困卦」, 正자의 전, 剛陽君子而爲陰柔小人所掩蔽, 君子之道, 困窒之時也.

42) 『주역』 「乾卦」, 正자의 전, 至健, 固足以見天道也. 君子以自彊不息, 法天行之健也.

이러한 내용들이 면면히 표현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표현 기교와 용사, 자구의 배치를 통해 지천시의 시풍을 살폈던 것과 달리 시인의 정신지향과 관련하여 지천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한 기점을 연결해 보고자 한다. 지천의 작품에는 누정시가 많고 특히 “드넓은 바다, 높은 산, 바위, 하늘, 거친 물결과 파도” 등 강건한 이미지의 소재와 시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 또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의 항상성과 무한함을 표현하여 그 강건함과 역동성의 이미지를 구현해 낸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자연경물을 바라보며 흥취를 노래한 제가의 한시와는 다른 특질이다.

1593년 길주에 유배된 이후 지천은 경물시를 많이 지었는데 길주의 험란한 지형과 산맥, 기이한 경물 등을 묘사하면서 곤궁한 자신의 처지를 빗대고, 한편으로는 우뚝하고 웅장한 자연 경물의 무궁함을 바라보며 장대하고 강인함, 굳건함의 이미지를 시에서 자주 형상화하였다. 「吉州八詠」<sup>43)</sup> 제 7수, 「嶺東送客」에서는 “가련쿠나, 오열하며 흐르는 앞 시냇물, 밤낮없이 이별을 원망하는 소리로다.[可憐嗚咽前溪水, 日夜長含怨別聲]”라고 하여 천지자연의 변함없는 흐름을 표현하였다. 다음의 시를 살펴보자.

황정옥, 「吉州八詠길주 팔영」 중 여덟째 수 (磨天觀海마천령에서 바다를 보다)<sup>44)</sup>

長白南傾嶽翠連	장백산 남쪽으로 뻗어 푸른 산맥 이어지고
嶺東山頂出雲煙	마천령 동쪽산 정상 구름 속에 솟아있네
忽看滄海無窮際	홀연 가없는 바다를 바라보니
積氣剛風速舉天	운무에 강풍 불어 먼 하늘이 걷히는구나

위의 시에서는 길주 주변의 장백산과 마천령의 여러 산들을 바라보며 웅장함을 그대로 묘사하였다. 길주의 “저물녘 풍경, 진남의 새벽 종소리, 백담촌의 밥 짓는 연기, 산성의 석양, 온천의 목욕, 문암의 낚시, 영동에서의 전승, 마천령의 바다” 등, 여덟 가지의 제재로 읊은 시들은 지천이 유

43) 『지천집』 권2, 「吉州八詠」 p.428c.

44) 위의 책.

배지로 온 초기의 심경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의 낯선 풍경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나 “깎아지른 높은 성곽”, “푸른 바다 큰 고래도 끌어올 수 있는 어부의 낚시하며 소리치는 소리” 등의 표현으로 역동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다. 위의 시에서도 “끝없는 바다[滄海無窮]”, “강한 바람[剛風]” 등은 광활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말구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 하늘을 걷힌다.”는 표현은 아래의 시에서도 보인다. 여기에서 積氣는 곧 하늘을 가리운 소인이며 剛風은 군자의 기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천은 強風이라 하지 않고 굳이 剛風이라는 시어를 지속적으로 썼다. 이 강풍은 강하고 거센 바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는 끈질긴 바람에 가깝다. 즉, 곤궁한 처지에서도 자신의 도를 견지하며 건디는 자신을 빗댄 것이다.

황정욱, 「登嶠然亭 次栗谷韻[호연정에 올라 울곡 시에 차운하다]」 2수 중 둘째 수<sup>45)</sup>

浩蕩真無礙	너른 물 참으로 막힌 데 없고
虛空却向巔	허공은 산머리로 문득 향하네
八窓雲霧盡	사방의 구름 안개 모두 걷히니
萬里日星懸	만 리에 해와 별 걸려있네
大氣還淨地	큰 기운이 도리어 땅을 띄우고
剛風本舉天	높은 바람 하늘을 들어 올리네
有誰窮上下	위아래 다 가본 사람 누가 있으랴
吾欲學飛仙	나는 신선이 되는 법 배우고 싶구나

위 시는 1578년에서 1579년 쯤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에서도 “無礙”라고 표현되었고 높은 산 정상 모습과 확 트인 경물의 광경 등을 앞시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경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주목된다. 萬里와 萬古, 萬魚, 千層 등의 숫자로 표현하는 시간과 공간, 대상의 광활함 역시 지천시에 자주 등장하는 시어이다.

45) 『지천집』 권2, p.433d.

황정옥, 「白川如意社, 新築小廬, 題曰八達亭[배천의 여의사에 작은 집을 새로 짓고, 팔달정이라 적다.]」<sup>46)</sup>

世事不如意	세상일 내 뜻과 같지 않은데
何爲里得名	어찌하여 마을 이름 그리 지었나
人間皆幻妄	인생 모두 허깨비 망상들인데
物外孰輸贏	세상 밖에 누가 지고 누가 이길까
天地胸襟闊	천지간에 가슴 활짝 열리고
江山眼界平	강산에 시야가 툭 트였구나
吾生方一快	내 삶이 바야흐로 즐거워지니
到此句還成	이제야 시구가 이루어지네

황해도 지역 배천의 여의사에 작은 집을 짓고 은거하는 시기에 지은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이름이 如意이지만, 지천 자신의 일은 세상에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으므로 수련에서 마을이름에 대해 자조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집 이름을 八達亭이라고 지었으니, 어느 곳이든 四通八達하는 넓고 평탄함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 경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 트인 것을 묘사했겠지만, 지천 자신의 가슴속이 확 트이고 광활하게 드넓음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지천 시에 이러한 표현이 다음 시에도 나온다.

황정옥, 「寄題抱月亭[포월정에 써서주다]」<sup>47)</sup>

해주에 사는 이수익의 작은 정자이다. 海州居李守益小亭

何緣一棹過滄溟	무슨 인연으로 배를 저어 바다를 건넜는가
快見飛甍耀嶺丁	물가에 비친 높은 다락 시원하게 보이네
曾躡此丘收勝概	일찍이 이 언덕 올라 좋은 경치 보았는데
却聞新賞出前亭	문득 새로운 완상거리 있다 듣고 앞 정자로 나갔네
海門萬里金波動	만리 해협에 금빛 물결 일렁이고
碧落千層素氣經	천층 높은 하늘에 흰 기운이 지나가네

46) 『지천집』 권2, p.435b.

47) 『지천집』 권2, p.439a.

八九胸中添絕灑  
御風疑入廣寒局

운몽택 삼킨 듯 가슴속 매우 시원하여  
바람타고 달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네

앞 시에서 지천은 강산의 시아가 트인 것을 표현하며 “天地胸襟闊 천지간에 가슴이 활짝 열린다.”라고 하였다. 또 이를 매우 상쾌하게[吾生方一快] 여겼는데, 정자에서의 경관 묘사는 대체로 이와 같은 유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위 시에서는 이수익의 정자에서 널리 내려다보이는 바다와 높은 하늘의 흰 구름을 상상하였다. 그리고 이를 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의 「子虛賦」에, “여덟아홉 개의 운몽택을 삼킨 듯, 그 흉중이 일찍이 막힘이 없었다.[吞若雲夢者八九, 於其胸中, 曾不蒂芥.]”<sup>48)</sup>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 운몽택을 삼켜도 가슴속에 걸림 없다는 것은 곧 포부가 아주 웅대함을 의미한다. 지천의 한시에는 “胸襟闊”, “八九胸中” “快見” 등 경물을 바라보는 지천의 심경이 호탕하고 굳세게 표현되어 있다. 운몽택을 삼킨 듯한 광활함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자신의 처참하고 원통한 처지를 받아들이고 곤궁함 속에서도 형통함을 잃지 않으려 한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지천은 자연 경관을 대할 때 천지자연의 운행과 변함없는 항상성을 언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건한 정신세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곤궁함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利城의 동헌에 차운한 다음 시에서는 자신의 곤궁함을 초나라 신하에 비유하고, 곤궁함은 바다가 어두운 기운을 쓸어내듯 지나갈 것임을 일출의 모습에 투영하였다.

황정욱, 「次利城東軒韻[이성 동헌의 시에 차운함]」 4수 중 둘째 수<sup>49)</sup>

萬里滄溟掃鬢昏  
乾坤初闢坎離門  
衆峯父祖皆相揖

만 리의 푸른 바다 어두운 기운 쓸어내니  
천지에 물과 불의 문이 처음 열렸네  
뭇 봉우리 부조같이 모두 서로 읊을 하고

48) 『漢書 卷57上 司馬相如傳』

49) 『지천집』 권2, p.442a.

高頂星辰却可捫	꼭대기에서는 별들 만질 수 있을 듯
驅石漫傳秦帝跡	돌을 몰고 갔다는 진시황 때 얘기 전해오는데
割腸誰慰楚臣魂	애끓는 초나라 신하 혼은 누가 위로하리오
桑田亦是須臾事	상전벽해되는 것은 잠시 동안의 일이니
賊滅時平海水翻	적이 없어져 태평해지면 바다물 뒤집히리라

원래의 시는 신희이 1595년 巡按御史로 함경도 利城縣에 갔을 때 지은 「이성의 동헌에서 네 수를 읊다[利城東軒四詠]」<sup>50)</sup>이다. 이춘영과 황정욱 등이 뒤이어 화운하였다.<sup>51)</sup> 상춘은 “바다, 해변의 산, 소나무 숲, 버드나무의 제방”에 네 가지에 대해 읊었는데 후인들이 소나무를 읊은 시를 높이 평가하고 절조라고 칭송하며 화운한 시가 전해진다. 수련은 해변의 산에서 일출을 바라본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천지가 처음으로 음양의 문을 열어 젖혔다고 표현하였다. 함련 역시 일출의 기운과 형세를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런 수련 함련의 형상화는 신희이 “함지에서 솟는 해에 어두움이 트이니, 드높은 산악들의 바다 문이 열리네.[咸池初日豁氛昏, 列嶽巖僧迸海門]”라고 한 것과 달리 지천은 하늘과 땅, 물과 불 등, “乾坤坎離”의 네 괘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지천시에 나타나는 강건함은 이렇듯 경물을 바라보는 지천의 기상과 관점, 내면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 시는 광활한 자연의 운행과 장관을 바라보며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극복하고 그 속에서 자연을 본받으려 한 자세를 느낄 수 있다.

황정욱, 「遊穿島[천도에서 노닐다]」<sup>52)</sup>

仇池小有潛通地 구지 소유천 물래 땅에 통하는데

50) 신희, 『상춘선생집』 제12권.

51) 신익전, 『동강유집』 제14권, 「書先君利城四詠後」, 이춘영의 차운시는 『體素集』 권상에 「申敬叔作利城四詠蓋謂海也海山也松林也柳堤也次韻」이라는 제명으로 실려 있다. 이밖에 崔岌, 柳夢寅, 허적, 金尙憲 등의 차운시가 남아 있다.

52) 『지천집』 권2, p.443b.

極目披襟海上臺 옷깃 헤치고 바닷가 누대를 멀리 바라보네  
 八九平吞雲夢闊 팔구 개의 넓은 운몽택 마음으로 삼키고  
 三千遠觀漢槎回 아득히 삼천 물결에 은하의 뗏목 돌아오네  
 滄波浩渺鯨爭戲 끝없는 푸른 파도에 고래가 다투어 노닐고  
 碧落霏微雨驟來 까마득한 하늘엔 소나기 쏟아지네  
 老去壯觀真快意 늙어가며 보는 장관 참으로 통쾌하니  
 向來憂惱總成灰 지나간 근심 걱정 모두 재가 되는구나

지천은 穿島를 마치 신선이 머무는 멋진 곳이라고 하여 누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넓은 시야와 확 트인 정경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형상화하였다. 운몽택을 삼킨 듯 가슴속이 드넓어짐을 吞胸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장관을 바라보고 자신이 겪고 있는 유배와 실의, 곤궁함을 잊은 듯 참으로 통쾌하다[眞快意] 하였다. 미련의 두 구는 지천 자신이 유배지의 궁한 처지에서도 형통함을 잃지 않고, 자연의 굳건함을 바라보며 군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려 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지천은 「題砥柱臺」<sup>53)</sup>에서도 큰 바위를 보고 “산과 바다 뒤바뀌어도 홀로 남으리니, 우레치고 바람 불어도 움직이기 어려우리[巖海驚翻只獨留, 雷風搏擊猶難動]”라고 하여 영원불변한 바위의 강인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말구에서 또 한 번 “끝까지 바라보니 가슴속이 막힘이 없구나[八九胸吞在極眸]”라는 표현을 썼다.

지천의 시에는 대인군자가 본받아야하는 대상이 있고 이를 가리우는 小人과 험란한 世波를 상징하는 시어가 빈번히 사용되었다. 주로 積氣, 구름, 세찬 물결, 벼락과 바람, 비,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주역에서도 유사하게 표현되는 단어이다. 군자가 소인에게 가린 바 되어 곤경을 겪으나 천지자연이 순행하여 회복될 것을 기다리며 험난해도 기뻐하며 곤궁해도 형통함을 잃지 않는 군자의 자세를 지향하였다. 때문에 경물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낭만적이거나 역사적 懷古 의식·정감의 표출보다는 시간과 공

53) 『지천집』 권2, p.443c.

간의 광활함·영원불변한 자연, 경물의 굳셈과 역동적 이미지들이 강건한 기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원망과 실의의 한탄의 어조가 비교적 적고 대체로 자연물의 강건함과 강인함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양상을 띤다.

황정욱, 「將卜居于吾助川之上, 夜宿村舍, 忽遇大水, 前川漲溢, 仍思朴淵之勝[오조천가에 집터를 잡으려 하면서 밤에 시골집에서 묵었는데, 갑자기 큰물을 만나 앞내가 불어 박연폭포의 좋은 경치가 생각나다.]<sup>54)</sup>

東眺天磨拉聖居	동쪽으로 천마산과 성거산 바라보고
朴淵深在洞門回	박연폭포처럼 깊어 골짜기 문 앞 둘러가네
靑山玉液何時埒	청산의 깨끗한 물 어느 때에 터졌는지
碧落銀河此夜開	하늘의 은하수가 밤에 쏟아졌네
聲入千巖萬壑吼	소리는 천봉만학에 울리고
爽隨大氣剛風培	상쾌함은 대기의 굳센 바람 따라 커지네
依然導我參寥廓	아련히 나를 텅 빈 하늘로 인도하니
眞若飛仙挾往來	참으로 나는 신선이 오가는 것 같구나

오조천은 황해도의 하천으로 성거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데 주변 산들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곳이다. 이를 千巖萬壑이라고 간단히 묘사하면서도 맑은 물이 큰소리로 울리며 흐르는 모습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었다. 큰물이 불어난 것은 위기와 고난일 수 있으나, 지천은 하늘의 은하수가 쏟아진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경련에서 불어난 앞내의 물소리가 천봉만학을 울려 상쾌한 기운이 굳센 바람에 더 커진다고 하여 역동성을 표현하고 이러한 장관이 주는 장쾌한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이에 지천 스스로 즐거워하며 인간세상에서 벗어나 신선세계에 온듯하다 표현하였다. 여기에서도 「剛風이 북돋아준다」는 표현을 썼으며 “靑山玉液”이 터져 만학에 울린다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는 의리와 正道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4) 『지천집』 권2, p.444c.

지금까지 지천의 한시에 나타나는 강건함의 특징에 대해서 지천이 자주 쓰는 시어와 표현법, 형상화에 대해 『주역』의 「困卦」와 「乾卦」 등에 함축된 대인군자의 처신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지천은 관각문인의 대가로서 용사와 기교, 칠언율시의 措辭에 대해서 자주 그의 시에 대한 평가가 언급되었다. 본고는 지천의 문학에 투영된 면면은 경학에 조예가 깊은 문인으로서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시어와 이미지를 통해 강건한 문예미를 이루었다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지천의 문학에 나타나는 강개함과 강건성은 당대 황정견, 진사도의 영향이라든가 송시풍의 영향이라는 점을 논외로 하고 다만, 지천의 내면세계와 정신지향의 반영, 그의 기상과 연결지어 고찰한 것이다.

#### IV. 결 론

지천의 한시는 호소지 삼가 중에 제일 적은 작품 수가 전하여 당대 지천이 이루었던 문단의 명성과 관각문인으로서의 업적 및 문학사적 가치와 위상을 논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게다가 임진왜란이후 아들 황혁 및 증손자까지 세상을 일찍 떠났고 봉당의 정쟁 속에 많은 모함을 받아 생을 마칠 때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다. 당대의 많은 시인들이 이에 대해 역시 안타까워하였고, 그나마 시화 비평서에 지천의 뛰어난 작품과 경향에 대해 시평과 기록이 남았다.

다만 현재 지천의 문학 연구는 다소 이들 작품의 품평에 한계를 두고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지천의 표현으로 “운몽택 여덟아홉 개를 품을 정도의 큰 포부와 드넓은 경지”를 지향했던 그의 사상과 문학을 작은 연못에 울타리를 두어 놓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적은 작품으로 지천의 대인군자로서의 기상과 강건함의 특징을 온전히 살펴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앞으로 다양한 자료를 보충하여 지천의 진면목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 文獻〉

- 황정욱, 『芝川集』 한국문집총간 41권, 민족문화추진회.  
황의열 역, 『譯註 芝川集』, 2017.  
김장협,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2권, 민족문화추진회.  
장유, 『谿谷集』 한국문집총간 92권, 민족문화추진회.  
柳根, 『西垞詩集』 한국문집총간 57권, 민족문화추진회.  
홍서봉, 『鶴谷集』 한국문집총간 79권, 민족문화추진회.  
윤근수, 『月汀集』 한국문집총간 47권, 민족문화추진회.
- 구사회, 「황정욱론」, 『조선시대 한시작가론』, 이희, 1996.  
김중서, 「芝川 黃廷彧의 삶과 시」, 『韓國漢詩研究』 20, 한국한시학회, 2012.  
신향림, 「黃廷彧 詩에 나타난 大人의 人格理想」,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화회, 2001.  
이민호, 「芝川 黃廷彧 詩의 拗體에 대하여」, 『어문연구』 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이은주, 「황정욱 시의 대비적 양상에 대한 일고찰」, 『한국한시작가연구』 6, 한국한시학회, 2001.  
이종묵, 「해동강서시파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종묵, 「湖蘇芝 律詩의 文藝美」, 『한국한시연구』 23, 한국한시학회, 2015.  
차용주, 「黃廷彧 研究」, 『한국한문학작가연구』 2, 아세아문화사, 1999.

## Abstract

*About Ganggun(剛健: the Obdurability) Appearing in JiCheon(芝川) Hwang  
Jeong-uk's(黃廷彧) Literature*

Lee Jae-sook\*

This manuscript paid attention to the obdurability inside Hwang Jeong-uk's literary works through his thought and intended to analyze the features in scenery of the season, progress of poetic sentiment, favorite poetic words and expressions and so on.

As JiCheon's Chinese poem reveals the methodology of cultivating YuHak (Confucianism) at the face of it, the author of this study examined it closely in relationship with the concept of Ganggun(obdurability) in <<Juyeok>>.

The most important directing point in JiCheon's life was the thought of righteousness and optimism based on Kyeonghak (Chinese classics).

For this reason, he could sustain firmly despite of political isolation, political strife between factions and political slanders.

The mental intention JiCheon normally pursued was revealed in his Chinese poem as it is in which he often materialized the image of strongness, tenacity, and toughness in the perpetualness of high and magnificent natural features.

He used the poetic diction symbolizing perpetualness and magnificentness such as mugung(eternity), mujin(no limit), muae(freedom from all obstacles), gangpung(strong wind), manri(ten thousand), mango(eternity), manoe, cheoncheung and so on and made frequent use of the expressions presenting the spirit and ambition of the vast cheonji (heaven and earth) of palguhyungjung.

The obdurability appearing in JiCheon's poem has a close relation with his spirit and viewpoint looking at the natural features and his inner world.

---

\* A Researcher of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Sino Culture /  
jaisugi@hanmail.net

You can feel his attitude of overcoming his needy circumstances and imitating the greatness of the nature while watching the nature's race and spectacles.

The study examined JiCheon's spirit like this with regard to the behaviors of great character and noble man implied in <<Juyeok>>'s <Gongae> and <Geongae>.

【Key words】 Hwang Jeong-uk(黃廷彥), JiCheon(芝川), Ganggun(剛健:obdurability), Juyeok(周易), Gongae(困卦), Hwanghyeok(黃赫), great character(大人), noble man(君子)

투고일 : 11월 17일, 심사완료일 : 12월 03일, 게재확정일 : 12월 17일